

계분 자원화 신화향도 꿈꾼다



▲ 태창공업 전승록 대표

지난 5월 양계협회 주관으로 2개지역에서 개최된 전국 닭 질병 순회 세미나에서 업체 홍보차 참가한 (주)태창공업(대표 전승록)은 계분발효기를 이용하여 발효된 계분을 전시해서 눈길을 끌어 모았다. 계분으로 보기에선 고운입자에 분 냄새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계분이 오히려 구수한 냄새가 날만큼 많은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본 기자는 양축가들의 고민인 분뇨처리 차원에서 친환경 축산을 지향하고 골칫거리였던 계분을 소득까지 가져올 수 있는 효자제품으로 변모시킨 계분발효기를 설계제작·설치판매하는 태창공업을 내방하여 자신만만한 제품 '바이오 콤포스트'에 대해 취재하였다.

(주)태창공업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태창공업(대표 전승록)은 1999년도에 태창공업사를 설립하고 2002년도 주식회사 태창공업 법인을 설립했으며 합병을 통해 내수를 다졌다. 동사는 굴드펌프, 금호타이어, 수산중공업 등과의 협력업체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2004년도에는 ISO9000/2000 인증을 획득한 업체이다. 또한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비에 필요한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마쳤으며 축분발효기용 교반날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계분발효기 전문업체이다.

전승록 사장이 자신만만하게 내세우는 계분발효기 바이오-컴포스트(BIO-COMPOST, 이하 컴포스트)는 대(75톤), 중(55톤), 소(35톤)로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중형이 소형과 가격차이도 적을 뿐만 아니라 대형 1대 가격으로 중형 2대를 구입하면 실용적인 면이나 가격 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컴포스트를 설치하고 계분 활용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경제성에서 발효를 위해 톱밥이나 왕겨 및 부재가 필요치 않으며 자체 발효열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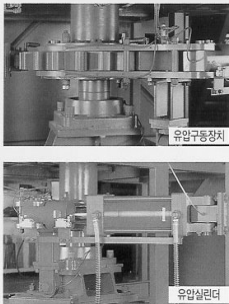
▲귀평농장에서 9년째 사용중인 컴포스트

용함으로써 다른 에너지가 전혀 필요치 않으며, 적은 용량의 전기로만 운전되어 전기로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인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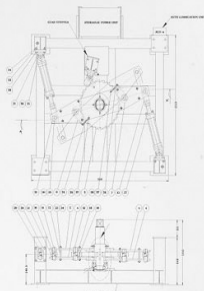
계분발효에 있어서도 계분(수분 75%)을 기타 과정없이 직접처리하고 자동화된 콘트롤 패널로 조작이 간단하다. 또한 일괄 배기되어 악취가 말끔히 처리되어 민원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컴포스트는 수직밀폐형으로 좁은 공간과 옥외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탱크를 3중구조(스테인레스, 단열재, 철판)로 내구성 및 단열성을 강화했으며 유압방식으로 고장이 없고 동력비 절감

I. 유압구동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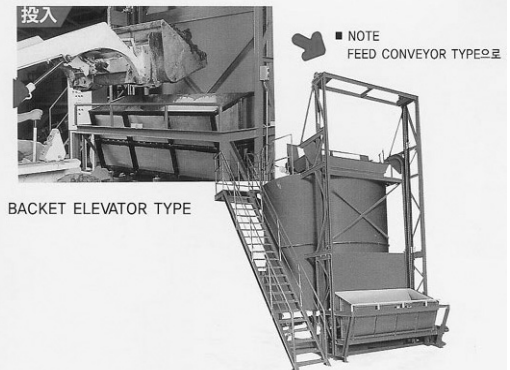


1. 강력한 유압실린더에 의한 구동
2. 보수가 필요없는 무소음, 견고한 구동장치



▲바이오 컴포스트

II. 투입장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발효원리는 교반층이 핵심

발효기간은 6~7일로 먼저투입된 계분이 먼저 배출되는 선입 선출방식이다. 발효원리는 7일이면 매일 전체용적의 1/7 정도인 7,000~8,000kg 정도의 계분을 투입하여 발효조내에는 7개의 시루떡과 같은 7개 층이 생긴다. 이때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교반기가 계분을 위해 회전을 하는데 이때 발효층이 뒤섞이거나 파괴되지 않게 한 것으로 교반중 교반층이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날개형상을 설계한 것으로 특허출원한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축산처리시설 자금지원 활용

전승록 사장은 고가로 인식되어 구입할 여건이 어려웠던 농가들이 축산분뇨시설 자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알려달라고 꼭 당부한다. 농가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분뇨와 관련해 정부지원은 양계분야에서 케이지 4단 기준 평방미터(m²)당 34,000원씩으로 50%는 완전 보조되며 나머지 50%는 3%저리로 7년 상환하는 제도가 있다. 개인한도는 2억원까지, 영농조합법인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축산분뇨와 관련해 친환경 축산을 지향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농가들이 사전에 알고 활용만 잘 하면 그동안 고민거리였던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절차를 보면 그 예로 당해 2006년도 12월에 각 군청 축산분뇨과에 신청하면 2007년도 10월까지 검토

를 거쳐 승인절차를 받아 2008년도 1월에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계분도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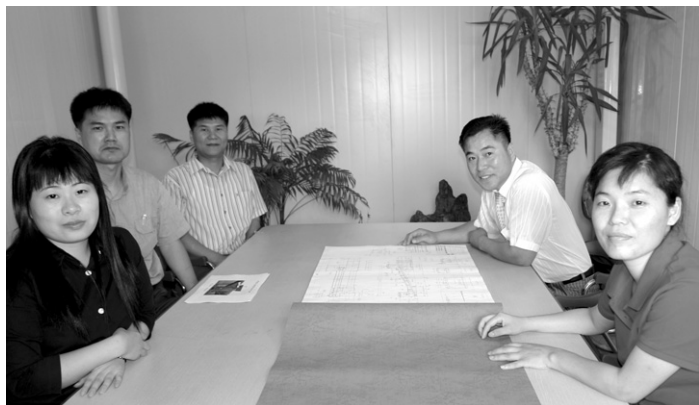
“계분도 자원이다!”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농가 서비스를 위해 농가의 또 하나의 걱정거리인 A/S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후관리도 책임을 다한다고 말한다.

전승록 사장은 콤포스트를 사칭한 복제품 때문에 잘 만든 제품까지 저평가 되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은 농가들에게 (주)태창공업의 이름을 걸고 우수한 제품만을 공급하겠다는 축산인과의 약속을 밝혔다. 지속적인 A/S는 물론이고 기술과 기능을 끊임없이 보완하며 진화하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한다.

태창공업의 콤포스트는 타회사 제품과 발효원리는 같다고 하지만 태창공업은 다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 통해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귀평농장 계분 혁신사례

실제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콤포스트를 설치하여 계분을 활용하는 농장을 찾아 광주 인근에 있는 곡성군의 귀평농장(대표 장중옥)을 방문



▲ 태창공업 회의장면(좌부터 강선미 사원, 정현구 과장, 이주호 본부장, 전승록 사장, 전화연 사원)

하였다. 귀평농장은 현재 무창계사 산란계 1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특수 조제한 영양사료를 이용해 우수한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이다. 주변이 논과 주거지로 콤포스트 설치 이전에는 극심한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큰 고초를 겪었으며 연간 분뇨처리 비용으로 3천만원 가량의 경비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귀평농장 장종옥 사장은 9년전 콤포스트를 설치한 이후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계분처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계분을 판매해 연간 4천만원의 부수익까지 보고 있다고 말하며 전승록 사장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한다. 유기농 버섯농가에 계분을 100% 판매한다면서 없어서 못 판다고 말할 정도였다. 귀평농장을 보면 분뇨처리비용 절감과 계분판매로 콤포스트를 설치한 이전보다 연간 7천만원의 수익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분뇨처리장을 가보니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질퍽한 계분과 악취가 아닌 고운 흙과 같았으며 구수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장종옥 사장은 예전에 사용했던 로터리식 계분발효기는 딱 1년 1일, 366일만 사용하고 멈춰 애물단지가 됐다고 한다. 반면 콤포스트는 9년째 잔고장 없이 계분을 자원화 시켜주고 부패미 노후화된 부분만 교체했다고 한다. 또한 이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 사장이 달려와 준다고 전하며 구입후 A/S도 걱정없이 믿을 수 있다고 한다.

근무시스템을 보면 항시 문제발생을 염두해 지역별 지사를 두고 있으며 휴가철에도 순환휴가제를 도입해 공백없이 언제든지 A/S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농장을 방문한 당일에도 전승록 사장은 제품사용시 문제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한편 본 기자가 취재하기 몇 일전 포천지역에서 계분발효기 조사차 태창공업의 콤포스트가 설치



▲ 좌부터 전승록 사장, 장종옥 귀평농장 사장, 이주호 본부장

된 의성의 한 농장을 방문했다고 해서 직접 콤포스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역시 콤포스트에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지역에 설치된 계분발효기 역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 농장은 유창계사 A형 케이지이면서도 계분이 발효가 고운 가루처럼 잘 되고 악취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을 확인하니 믿음이 더 했다.

철저한 관리 뒷받침되어야

전승록 사장과 장종옥 사장은 이날 대화에서 농가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을 당부했다. 콤포스트가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농가들의 의식향상과 사육환경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귀평농장은 여름철 분변에 수분이 많을 경우 그만큼 계분화가 어렵게 되지만 계사내 환기시스템을 이용 환과의 거리가 가까운 부분이 건조가 빠르다는 점을 알고 한동마다 계분벨트를 절반씩 이동시켜 최대한 건조화를 시키고 콤포스트를 이용하여 특정 계절에 문제되는 사항들을 관리자의 지혜가 더해져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전승록 사장과 장종옥 사장은 이처럼 우수한 축산기자재의 공급과 철저한 관리·관심을 가지고 농가들에게는 계분도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미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취재 | 기영훈 기자
theme6017@hanmail.net

